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교육실태와 평생교육과제¹⁾

김경미* · 최윤지* · 이진영* · 고운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공주대학교 강사

A Study on the Agricultural Education Conditions and Lifelong Learning Policies by Role Types of Woman Farmers

Gyung Mee Gim* · Yoon Ji Choe* · Jin Young Lee* · Woon Mee Koh**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 **Lecturer,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classify rural women's roles according to agricultural activity, and b) to find out the needs for education system related to women's rol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f farming activities, and c) to put forward the programs in agricultural educational system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mpirical analysis including women in rural Korea.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could be offered for helping the rural wome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ir roles.

1) Family cultural reform, farming helper system, relief of housework allotment, supporting educational expenses, equal opportunity and easier places for particip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education programs of women farmers in Korea. 2) Government should provide diverse incentive programs, appropriat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upports for women farmers' agricultural education including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easy farm management. 3) Automation and mechanization of farm works, computer education,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skills, family consciousness and group action, importance and the future prospects of agriculture and farming, leadership role should be strengthened in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s for rural women.

Key Words : Woman Farmers, Role Types, Agricultural Education

I. 서 언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미래의 농업은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산업 기술(IT) 및 메카트로닉스기술이 접합되어 생산 과정이 자동화 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에게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선별, 가공, 포장, 유통 등 수확 후 관리기술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 발휘가 남성농업인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해야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임은 물론 여성농업인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1)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국책기술공동연구사업으로 수행된 결과임

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필요한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듯 농업·농촌의 지속성 유지와 후계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연구는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비해 지위는 정치적으로는 각종 농업관련 단체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기회가 막혀 있고, 국가 제반정책이나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정책 수립과정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농업 후계인력 확보 및 WTO 출범 이후 취약해진 농업경쟁력 회복과 수익성 위주의 가족중심 농가경영측면에서 전문 여성 농업인력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과 영농기술교육은 주로 남성경영주 중심인 데 반해 EU, 일본 등은 이미 농가를 최소법인 경영체로 인정하고 가족 내 여성의 법적 지위 규정,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건전한 농가경영체 육성, 전문적 농업후계인력 확보, 안정적 농가지원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의 지위 향상(gender equality)이라는 국제적 이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김경미 외, 2004b).

우리나라 여성농업 인력은 대부분 노령화되고 학력이 낮고 전문성이 떨어져 미래 한국농업의 중추 세력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고 생산성 높은 여성 인력이 농업부문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여성농업인력을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농교육이 따라야 한다.

또한, 영농활동에서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그 역할을 주도적인 위치에 두느냐 아니면 보조적인 위치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법적 체계가 달리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여성농업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여 체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앞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영농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교육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영농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을 진단해 보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역할들에 따라 영농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와 요구 등을 분석하여, 그에 걸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즉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로 영농교육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능동적인 농업경영과 참여를 통한 경제력 확보, 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정책 서비스의 양적·질적 기준을 결정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현 우리나라의 영농교육은 남성농업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교육은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영농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대한 근거를 모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있어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역할들을 유형별로 구분한다.

둘째, 여성농업인 역할 유형별 영농교육에 대한 지원요구를 탐색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요구에 맞게 영농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

역할은 사회구조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지위에 맞추어 개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신분 또는 위치와 관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평가 정도는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와 이어지며, 이 명칭이 법규나 정책자료에 활용되어 나타나게 되면 이로 인해 법적·제도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적·제도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양적·질적 기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다양한 역할과 지위에 대한 분류의 필요성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농가 전업주부, 농업생산 참여 여성, 농외취업여성, 농가 소속 자영업여성, 여성농민, 여성농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개념들이다. 정기환(1997)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가와 비농가 전체 여성을 농촌여성이라 하고, 농가에서 농업 또는 비농업에 취업하였거나, 전업주부, 겸업으로 활동하는 주부를 농가여성이라 하여 농촌여성의 하위집단으로 보았고, 다시 이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여성농업인으로 구분하였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취업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흔히, 농촌여성, 농가여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농촌여성은 통합시를 포함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총칭하는 편의적인 말로서 여성을 수동적이고 우연히 모여 살게 된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용어이며, 농가여성은 농가의 가구에 속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농촌여성 중에는 농가여성과 비농가 여성이 모두 포함되며, 농가여성 중에는 여성농업인 이외에도 농가에 속하면서 농림업에 취업하지 않는 여성, 즉 농림업 이외 부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도 포함된다. 또한, 여성농업인 중에는 비농가에 속한 여성농업취업자가 포함된다(김경미 외, 2004b).

따라서, 농촌여성은 지역적 개념이고 포괄적

지칭인데 비하여,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점점 강하게 부각되는 듯하다.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5조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민 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농업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여성농업인들은 과거 여성들이 하던 노동이외 남성의 영역까지 확대된 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경작작물이 확대되면서 기술적인 섬세한 작업으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전정숙, 1994), 앞으로 수도권 위주에서 상업농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자가영농에 참여하는 공동경작유형이 정착될 전망이다(김이선, 1997)이나, 여성들의 농업참여가 늘어나면서 농사일로 인한 어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농업노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여성들의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농림부, 2001).

이와 더불어 농업도 시장지향적인 상업영농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문화·규모화되고 있는 농업경영은 물론 농산물의 포장과 유통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와 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분야도 전자상거래·사이버마켓 등이 빠른 속도로 신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도 상당히 늘어났다. 즉, 전통적인 가정주부와 농업보조자에서 농업의 주도적인 생산자, 경영자, 마케터(marketer), 농외소득 경제활동 참여자 등 물론 농업정보수집가, 사이버 판매 및 경영관리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의 분류기준을 Pearson (1979)은 여성이 수행하는 최우선의 역할 수준

에 따라, ① 독립적생산자(independent producers), ② 농업파트너(agricultural partners), ③ 농업보조자(agricultural helpers), ④ 농가주부(farm homemakers)로 구분하였고, Gasson(1980)은 영국의 여성농업인 역할을 농사작업빈도, 농업책임감, 부부분업, 자원봉사조직 참여, 가사접근, 가사책임감, 관계 등으로 기준삼아 ① 농가주부(farm housewife), ② 주부농민/농업보조자(working farmwife), ③ 여성농민(woman farmer)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농업참여도(농업생산, 정보경영, 회계관리 등), 의사결정참여도, 자아정체감 관계 등을 기준으로, ① 농가주부(farm homemaker), ② 농업보조자(agricultural helper), ③ 사업경영자(business manager), ④ 전업 농업파트너(full agricultural partner), ⑤ 독립된 농업생산자(independent agricultural producer)로 구분하기도 하였다(Bokemeier & Garkovich, 1987).

정기환(1998)은 농업노동력 참여구조, 농업기술 및 경영관리 기술 수준, 농작업 기계화 접근성, 여성의 의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① 보조적 영농종사자, ② 전문적 농업경영인, ③ 자영업 및 전문직, ④ 전업주부, ⑤ 농외취업 주부로 구분하였으며, 김경미 외(2004b)는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협업/공동경영주, 독립경영주, 농업보조자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수준에서는 이러한 역할 유형이 비교적 명백히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역할이 농업참여도, 의사결정참여도, 소유권,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사회활동 등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만큼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많은 농촌여성들은 농가주부이자 동시에 주부농민이자 여성농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역할구

<표 1> 유럽 주요국가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지위 규정 내용

국 가	역할/지위 규정 및 주요 내용
프 랑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서 여성장영업자 지위 선택: ① 임금수령자, ② 동업자/공동경영인, ③보조자 → 1980 농업법: 농장주의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공동책임제도 도입, 농업경영에서 부부간 평등성 명시, 소유권과 무관하게 부부의 농업경영행위에 법적 의미(위임권) 부여 · 가족농업보조자 또는 준경영인 지위 인정 · 농업생산법인 「공동경영농업집단(GAEC)」(부부+제3자 1명 이상: 공동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10이하 조직⇒동일 경영주로 인정)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 인정: 농장의 공동소유시 권리와 의무도 공유
벨 기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인 인정: 소유계약서 등의 증서류 동명의의 작성(수입과 지출의 단독 결정 및 본인 수입으로 구입한 영농자재 개별 소유권 인정, 농지 임차시 공동명의 계약 후 취업시)
덴 마 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 인정: 부동산권리증서에 공동명의 등록, 의사결정 공유, 재산·수입·부채의 균등 배분 · 가족농업보조자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주 소득자 소득 100%에 세부과 → 소득 50% 양도시 양도액 50%에 세 부과, 한도내) · 남편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남편으로부터 직접 임금지불 금지(여성지위 종속방지)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 인정: 유한책임조직 또는 가족원이 공동조직한 조직의 일원일 경우 권리 인정 · 가족농업보조자: 부인 몫의 세 감감 또는 임금으로 요구, 부부간 재산계약 시 현재 및 장래 재산·부채 각 1/2 공유(채권자소송 면제) · 남편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남편으로부터 직접 임금지불 금지(여성 지위 종속방지)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 인정: 경영주와 공동계약 체결, 차지권 계승 등의 권리

자료: 박민선, 1999, pp. 147-165.

분을 소유권, 경영권을 중심으로 출자수준, 조합원의 자격 취득여부, 이들의 소득에 대한 가족내 협약사항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역할 및 지위를 구분하고 있다<표 1>.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별 조건을 유형화한 한 것을 기초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을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협업/공동경영주, 독립경영주, 농업보조자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역할유형에 대한 것을 문헌고찰하여 분석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영농교육 참여 실태는 조사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1.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5개 작목 150농가로 하였고, 작목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시설딸기(경남 밀양) 30명, 시설오이(전남 구례) 30명, 장미(경기 고양) 30명, 사과(충남 예산) 30명, 느타리버섯(경기 연천, 포천) 30명으로 총 150명이었다.

이는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농진청, 2002) 자료를 이용하였고, 50개 작목의 노동시간 분담구조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5작목(딸기, 오이, 장미, 사과, 느타리버섯)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작목 선정의 기준은 ① 기술교육을 받아서 능력 개발이 가능한 연령층이 주로 종사하는 작목일 것, ② 고소득, 경제작물로서 미래지향적인(재배면적 또는 재배농가가 증가할 전망이다 영농유형에 속하는) 작목일 것, ③ 상시고용, 고정적 생산(상대적으로 연중 균등한 노동투하와 생산)이라는 모델에 근접한 작목일 것 등이었으며, 조사지역의 선정은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집단재배지역 중심으로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조사기간

여성농업인의 영농교육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영농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 4명을 패널로 하여, 기존의 여성농업인 영농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접근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으며, 1차적으로 2003. 5~6월에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3. 6. 23~7. 7(15일)에 실시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은 공동경영주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78.7%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보조자(11.3%), 준경영인(6.7%), 임금근로자(2.7%), 독립경영주(0.6%) 순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04b).

2.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농업기술 수준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농업기술 수준을 알아본 결과 <표 2>와 같다. 모든 역할유형에서 재배기술, 포장 및 가공기술, 유통 및 판매기술, 회계 및 재무관리 기술은 비교적 보통 정도의 기술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다른 기술수준은 대부분 완전초보 수준으로 특별히 전문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은 독립경영주가 높고 공동경영주 유형과 임금근로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준경영인은 농업보조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보기)

- 기술수준(보통) 기술수준(전문가)
- 완전초보

〈표 2〉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농업기술 수준

기술수준	농업보조자	임금근로자	준경영인	공동경영주	독립경영주
재배기술	○	○	○	○	○
농기계사용기술	□	□	□	□	
포장 및 가공기술	○	☆	○	○	○
경영설계 및 진단		○	○	○	
유통 및 판매기술	○	○	○	○	○
정보수집 및 활용	○			○	○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		○	
회계/재무관리 기술	○	○		○	○
컴퓨터 활용/인터넷판매	□	□	□	□	□
농산물 저장기술	□	□	□	○	○
농약/비료사용기술	□	○	□	□	○
시설자동화설비기술	□		□	□	□

3.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농업관련 전문 교육 과정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농업관련 전문교육 과정(최근 3년간)에 참여한 경험을 묻은 결과 〈표 3〉와 같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재배기술교

육에 27(58.70%)명, 정보화기초과정에 5(10.87%), 기타 농업기술교육에 3(6.52%)명이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준경영인, 농업보조자의 경우 재배기술에 각각 3(60%)명, 4(50%)명이 참여하였다.

〈표 3〉 역할별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최근 3년간)¹⁾ (%)

교육과정 자기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준경영인	3(60)	-	1(20)	-	-	1(20)	-	-	-	-	-	5(100)
임금근로자	-	-	-	-	-	-	-	-	-	-	-	-
공동경영주	27(58.70)	1(2.17)	3(6.52)	1(2.17)	1(2.17)	1(2.17)	2(4.35)	5(10.87)	2(4.35)	1(2.17)	2(4.35)	46(100)
독립경영주	-	-	-	-	-	-	-	-	-	-	-	-
농업보조자	4(50)	1(12.5)	1(12.5)	-	-	-	-	1(12.5)	1(12.5)	-	-	8(100)
계	34(57.63)	2(3.39)	5(8.47)	1(1.69)	1(1.69)	2(3.39)	2(3.39)	6(10.17)	3(5.08)	1(1.69)	2(3.39)	59(100)

1) ① 재배기술, ② 농업경영(영농일지, 농업부기, 회계포함), ③ 기타 농업기술 교육, ④ 식품관련 교육(조리사, 전통요리, 출장요리, 생활요리, 농산물 가공), ⑤ 천연염색, 규방공예 등 전통기술, ⑥ 홈패션, 옷수선, 손뜨개 등, ⑦ 건강관리(맛사지, 수지침, 스포츠댄스, 생활체조 등), ⑧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서 자격, 인터넷 정보검색 등 정보화 기초과정, ⑨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제작 등 정보화 고급과정, ⑩ 자녀/가족관계, 대화기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⑪ 기타

4. 최근 3년간 농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았던 참여 횟수

〈표 4〉은 여성농업인들이 최근 3년간 농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묻은 결과이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은 총 59명(조사대상자 총인원: 150명 중에서 39.33%)이었다. 이 중에서 협업/공동경영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교육참여가 1회라고 응답한 사람은 18(39.13%)명, 2회는 8(17.39%)명, 3회는 6(13.04%)명이었다. 농업보조자인 경우는 2회가 4(50%)명, 1회가 3(37.5%)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 중 최근 3년간 농업관련 교육 참여 횟수는 1~2회에 머물

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전문 교육내용 평가

여성농업인이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전문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 〈표 5〉와 같다. 우선 협업/공동경영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참여한 교육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교육내용이 영농보다는 교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농업보조자와 준경영인의 경우에도 교육내용에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성농업인의 역할별 교육참여 횟수(최근 3년간) (%)

교육횟수 자기인식	1	2	3	4	5	6	7	10	12	13회 이상	계
준경영인	1(20)	2(40)	-	1(20)	-	1(20)	-	-	-	-	5(100)
임금근로자	-	-	-	-	-	-	-	-	-	-	-
공동경영주	18(39.13)	8(17.39)	6(13.04)	3(6.52)	2(4.35)	2(4.35)	2(4.35)	2(4.35)	1(2.17)	2(4.35)	46(100)
독립경영주	-	-	-	-	-	-	-	-	-	-	-
농업보조자	3(37.5)	4(50)	1(12.5)	-	-	-	-	-	-	-	8(100)
계	22(37.29)	14(23.73)	7(11.86)	4(6.78)	2(3.39)	3(5.08)	2(3.39)	2(3.39)	1(1.69)	2(3.39)	59(100)

〈표 5〉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전문교육 평가

평가	농업보조자	임금근로자	준경영인	공동경영주	독립경영주
농사일에 도움 됨			☆	☆	
소득향상에 도움이 됨	○		☆	☆	
영농보다는 교양에 도움 됨	☆		□	☆	
농사일/교양에 도움안됐지만 교육내용 만족			☆	☆	
그동안 만족한 교육이 별로 없다	○			□	
교육내용 다양하나 중복된 내용 많음	☆		☆	☆	
영농기술교육이 실제로 도움되기 위해 좀더 전문적이어야 함	☆		☆	☆	

(보기) 색칠해진 부분은 각 역할별 45% 이상이 응답한 것임

- 보통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렇지 않다

6.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전문 교육내용의 수준

여성농업인이 최근 3년간 참여한 전문 교육내용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표 6>와 같다. 교육내용이 중급인 경우 공동경영주, 준경영인은 60%가 참여하였고, 농업보조자의 경우는 62.5%

<표 6>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전문교육의 수준 (%)

교육수준 자 인식	초 급	중 급	고 급	계
준 경영 인	2(40)	3(60)	-	5(100)
임금근로자	-	-	-	-
공동경영주	9(20)	27(60)	9(20)	45(100)
독립경영주	-	-	-	-
농업보조자	3(37.5)	5(62.5)	-	8(100)
계	14(24.14)	35(60.34)	9(15.52)	58(100.0)

가 참여하였다. 각 유형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나, 교육내용 수준은 대체로 중급이하의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경영주의 경우에는 고급교육과정에 20%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희망교육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희망교육을 알아본 결과 <표 7>와 같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별 희망교육으로는 농업보조자, 준경영인, 공동경영주는 유통 및 판매기술을, 임금근로자는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판매 교육을, 독립경영주는 포장 및 가공기술,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희망하였다. 세부교과목으로는 농업보조자는 파종 및 생육관리, 임금근로자는 수확 및 저장, 시설자동화 등, 준경영인은 파종 및 생육관리, 컴퓨터 활용, 공동경영주는 파종 및 생육관리, 시설자동화 및 설비, 농업의 중요성과 전망, 독립경영주는 농약 및 비료 사용기술, 농기계 사용 및 수리, 여성 역할과 리더십에 관심을 보였다.

<표 7>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희망교육

희 망 교 육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농업보조자
작물재배 및 기술					
파종 및 생육관리		○	○		○
수확 및 저장				○	
농약 및 비료사용	○				
농기계 및 시설관리					
시설자동화설비		○		○	
컴퓨터 활용			○		○
유기농산물생산기술	○				
영농의식/ 단체활동					
농업의 중요성/전망		○	○		○
여성 역할/리더십	○			○	

〈표 8〉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요구

지원요구사항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농업보조자
영농도우미 지원	○	○	○	○	○
가사부담 완화		○	○	○	○
탁아/보육 지원	○				
교육접근성 개선		○		○	○
교육동기 유발			○		
교육비 지원	○		○		

8.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요구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묻은 결과 〈표 8〉와 같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학습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영농도우미 지원, 탁아/보육 지원(독립경영주), 교육비 지원(독립경영주, 준경영인), 가사부담 완화(공동경영주,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농업보조자), 교육접근성(공동경영주, 임금근로자, 농업보조자), 교육동기 유발(준경영인) 등을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여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사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영농도우미의 활용과 자녀탁아 및 보육지원은 물론 가사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가사부담은 양적인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족문화를 개선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대체로 여성이 가사에 대한 주 책임자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부담이 교육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가사분담과 협력적 가족문화를 통해 여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평등교육이나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과 같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현 우리 농업의 상황은 WTO 이후 취약해진 농업경쟁력 회복과 수익성 위주의 가족중심 농

가경영 측면에서 전문 여성 농업인력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며, 특히, 농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교육이 여전히 남성경영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유형에 적절한 평생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존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유형화한 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여성농업인들의 영농교육 참여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여성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선진국의 사례 및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공동경영주(78.7%), 농업보조자(11.3%), 준경영인(6.7%), 임금근로자(2.7%), 독립경영주(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별 희망교육으로는 농업보조자, 준경영인, 공동경영주는 유통 및 판매 기술을, 임금근로자(가족종사원)는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판매 교육을, 독립경영주는 포장 및 가공기술,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을 희망하였다. 세부교과목으로는 농업보조자는 파종 및 생육관리, 임금근로자(가족종사원)는 수확 및 저장, 시설자동화 등, 준경영인은

과종 및 생육관리, 컴퓨터 활용, 공동경영주는 과종 및 생육관리, 시설자동화 및 설비, 농업의 중요성과 전망, 독립경영주는 농약 및 비료 사용기술, 농기계 사용 및 수리, 여성 역할과 리더십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사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영농도우미의 활용과 자녀탁아 및 보육지원은 물론 가사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가사부담은 양적인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족문화를 개선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대체로 여성이 가사에 대한 주 책임자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부담이 교육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가정내 역할을 지원하는 안정적 영농환경이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잠재력 개발이 지체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자녀 양육 및 교육, 노인부양 등 여성의 가정내 역할을 지원할 사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도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이 저조하고,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농촌 사회내 여성의 낮은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끔 만들어,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교육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유사·중복의 성격을 띄고 있어 교육 투자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전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교육·훈련제도 하에서는 훈련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쌓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회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종합적인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따른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영농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에 앞서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를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도 함께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농업인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은 WTO 시대에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V. 참고 문헌

1. 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인정방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pp. 7-38.
2. 김경미 외, 2004a,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별 제도적 지원방안”,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제1년차 보고서」, pp. 3-41.
3. 김경미 외, 2004b,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별 정책적 지원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2), 359-369.
4. 김영옥·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5.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6. 김주숙, 1999,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방안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pp. 95-104.
7. 농림부, 2001, 「각종 농업정책의 성분석」, 한

- 국여성개발원.
8.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2, 「여성의 농업종사 유형 분류 및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9. 농촌진흥청, 1997, 「농촌여성의 역할수행 및 지위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10.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료」.
 11.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 「농촌여성 문제 및 복지 증진 방향: 진주시를 중심으로」.
 1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2002,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료」.
 1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2003,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료」.
 14.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15. 박대식, 2002, “농촌사회의 변화전망과 바람직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농촌생활과학』, 23(1), pp. 74-79.
 16. 박민선, 1999,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방안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pp. 95-104.
 17. 전정숙, 1994, 농촌유형별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2005년 10월 4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